News p/04

폴리드 '거리의 용기' 전략

Sports p/21

LG-두산 너무 다른 겨울

중국, 방공구역 조정요구 거부

NEWS p/02

편의점 술 구매할때 안내 음성

NEWS p/03

K-팝 오리콘 '싹쓸이'

ENTERTAINMENT p/16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 애(愛)' '존경 경(敬)'
'애경'이란 이름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애경

Entertainment p/19

요즘엔 어딜 가든 김우빈

metro

메트로 2013년 11월 29일 금요일 제2853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1

"추신수 957억 양키스행"

빵빵 터지지만 뻥뻥 뚫린다

英 보안업체 "전세계 공용 와이파이망 61% 사이버범죄에 사실상 무방비"
스마트뱅킹 해커 최대 사냥감 - 안심귀가 앱은 납치·유괴에 악용될 수도

죽어서도 부하들 곁에 - 채명신 장군 1평 사병 묘역에 묻히다

베트남전쟁 당시 초대 주월남 한국군 사령관을 지낸 고 채명신 장군이 28일 오전 서울현충원에서 '육군장'으로 영결식을 마치고 유언에 따라 장성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사병 묘역인 서울현충원 월남전 참전용사 제2묘역에 안장됐다(위). 이날 영결식에는 권오성 육군참모총장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박세환 재향군인회 회장 등 600여 명이 참석해 현화 행렬이 이어졌다. /연합뉴스

김민석(35·가명)씨는 최근 모 통신사 측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2년 의무 약정이 끝났으니 번호이동을 하라는 내용이었다. 순간 김씨는 최근 스타벅스를 집중적으로 이용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이곳에서 스마트폰으로 e메일을 보내기 위해 공용 와이파이에 접속했는데 휴대전화 번호와 통신사를 입력해야만 했다.

김씨는 "약정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실을 가입 중인 이동사보다 경쟁사에서 먼저 알았다는 게 의아했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스타벅스에서 와이파이를 쓸 때 입력한 정보가 유출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도서관, 카페, 공항, 지하철 등에 설치된 공용 와이파이가 인터넷 관련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와이파이는 무선접속장치(AP)가 설치된 일정 범위의 공간에서 무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이다. 즉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넘어가 범죄에 악용되거나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쓰는 서비스 가운데 하나인 '스마트뱅킹'은 해커들이 노리는 가장 큰 사냥감이다.

공용 와이파이에서 스마트뱅킹을 할 경우 이름과 계좌번호는 물론 비밀번호, 보안카드 넘버, 공인인증서 패스워드 등 중요한 정보가 고스란히 도용될 가능성이 있다.

해커가 공공장소에 가짜 와이파이를 만들어 사용자를 유인한 다음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은 현재 기술 수준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스마트뱅킹으로 실제 금전 피해를 입은 사례는 나오지 않았지만 금융정보를 일삼는 해커들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대담해져 모바일 금융거래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유행하는 '안심 귀가' 앱도 타깃이 될 수 있다. 어린이, 여성, 노인의 동선을 사용자 스마트폰에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앱이 인기인데 해커가 공용 와이파이에 들어와 해당 정보를 공유한다면 유괴나 납치와 같은 극악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28일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공용 와이파이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신문은 보안 전문업체 피플와이파이가 전 세계 334개 와이파이망을 대상으로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61%가 넘는 204개 시설에서 이 같은 취약한 보안 문제가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공용 와이파이 사용을 마냥 자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와이파이를 쓰지 않으려면 LTE 서비스 기준 매달 최소 10만원 이상인 데이터 무제한 요금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는 최저 요금제(3만4000원)와 비교할 때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그나마 35요금제를 선택해도 매월 쓸 수 있는 무료 데이터 제공량은 550MB에 그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제공자가 불명확한 AP는 피하고 금융거래는 가급적 공용 와이파이망에서 하지 않는 게 좋다. 노트북의 경우 방화벽이나 바이러스 백신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패스트푸드' 한국영화

기자 수첩
탁진현 <연예스포츠부 기자>

얼마 전 한 영화감독이 인터뷰 중 "한국 영화가 10년 전에 비해 많이 자극적으로 변했다"면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흥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더욱 센 장면을 넣어야 하기도 한다"고 고백했다.

이 감독의 말마따나 요즘 한국 영화는 온통 자극적인 장면들로 도배돼 있다. 이달 개봉한 영화 대다수에 잔인한 살인과 폭력이 난무한다.

처음 몇 편은 그럭저럭 참고 봤는데, 온통 피범벅이 된 채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을 계속 보니 영화관을 나올 땐 속이 좋지 않을 정도였다. 어떤 이야기나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아닌 단지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자극적으로 포장되고 있는 듯해 더욱 불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런 소재는 한국 영화뿐 아니라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단골 소재였고, 그중에는 호평과 함께 사랑을 받은 작품들도 많았다. 그러나 지금 한국 영화가 보여주는 현상은 장르의 다양성이 실종됐다는 점에서 더욱 아쉬움이 크다.

관객 입장에선 비슷한 소재의 영화를 중복해서 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실제로 이달 한국 영화 성적은 친구2 단 한 편의 이름값에 힘입어 250만 관객을 동원했을 뿐 나머지 영화들은 어깨를 펼 흥행 성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 쏟아내는 상업적인 의도로 제작된 자극적인 영화를 패스트푸드에 비유한 게 생각이 난다. 패스트푸드가 아닌 건강을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만든 다채로운 음식을 먹고 싶은 요즘이다.

中, 방공구역 조정요구 거부

정부 "우리도 KADIZ 이어도까지 확장 검토하겠다"

중국이 자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을 조정하지 않겠다면서 우리 정부의 CADIZ 조정 요구를 공식 거부해 양국 간 갈등이 불가피해졌다.

한·중 양국은 28일 백승주 국방차관과 왕관중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을 대표로 제3차 국방전략대화를 열고 CADIZ 문제를 공식 협의했지만 양국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백 차관은 이날 중국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첩되고 이어도가 포함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CADIZ를 조정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왕관중 중국 부총참모장은 주권 차원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만큼 CADIZ를 조정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 보호를 위해 우리도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중국 측에 통보했다. /김기환 기자

한·중 국방전략대화 28일 열린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 앞서 백승주(오른쪽) 국방부 차관과 왕관중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뉴스

검찰 '국정원 댓글녀 감금' 민주당 의원들 출석 통보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국정원 댓글녀 감금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강기정·김현·이종걸 의원에게 다음달 2~3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국정원 댓글녀는 지난해 12월 11일 저녁 서울 역삼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찾아와 감금했다며 민주당 당직자들을 고소한 바 있다.

김황식 전 총리 "내년 서울시장 선거출마 생각안해"

● 김황식(사진) 전 국무총리가 28일 내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당에서 출마 요청이 와도 거절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전 총리는 "선출직은 그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변했고, "불출마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확답을 피했다.

安에 쏠린 눈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 출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양당' 셋으로 쪼개질까

안철수, 신당 창당추진 공식 선언… "속도감 있게 인재 영입 나서겠다"

안철수(무소속) 의원이 28일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가칭) 출범 계획을 밝히고 신당 창당 추진을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낡은 틀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으며, 이제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공식적인 정치 세력화를 도모하고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디디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창당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최선을 다해 책임 있게 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혀 지방선거 전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안 의원은 새정치추진위가 출범하면 속도감 있게 인재 영입에 나서겠다고도 강조했다. 새정치추진위 인선은 다음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신당'의 출현은 새누리당·민주당이 분할해온 양당 체제 중심의 현 정치 구도가 다당제로 재편되는 태풍의 눈이 될 전망이다.

제1야당으로 독주 체제가 흔들리게 된 민주당은 이계안 전 의원 등 일부 전직 의원들의 이탈 조짐까지 보여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아직 꾸려지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두 배가량 상회하고 있는 것도 민주당으로선 위협적인 요소다.

일각에선 친노(친노무현) 세력과 '안철수 신당+민주당 내 비노(비노무현) 세력'으로 양분되는 시나리오를 거론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야권의 분화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 여유로운 표정을 보이며 향배를 관망하는 중이다.

/채현준 기자 mik@metroseoul.co.kr

'선진화법'에 손발 꽁꽁 묶인 민주

여 '감사원장 인준안' 단독처리 속수무책으로 당해

새누리당 28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임명동의안은 159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4표, 반대 3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지난 15일부터 6차례에 걸쳐 교섭단체들에 대해 조속한 협의를 촉구한 바 있으나 감사원장 공백이 94일째 지속돼 국정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동의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27명 전원 명의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차원에서 무제한 인사토론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강 의장은 "인사에 대한 토론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국회 관행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표결은 새누리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고,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 참여를 저지하지 못한 채 지켜봤다.

민주당은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표결 강행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며 '감사원장 직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채현준 기자

항의하는 민주 민주당 전병헌(아래) 원내대표가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채동욱 의혹' 정보유출 서초구청 국장 소환조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이 28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조 국장을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 모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무단 조회·열람한 경위와 관련 정보를 유출한 의혹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가족부 조회가 적법 절차를 준수한 것인지 확인하고 국가기관이나 구청 직무와 무관한 인물이 관여해 '위장 열람'한 것인지 등을 추궁했다.

조 국장은 지난 6월 중순께 지인으로부터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넘겨받은 뒤 구청 내 개인정보 민원서류 관리를 총괄하는 'OK민원센터'의 직원을 시켜 가족부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 기자

<전 한솔그룹 부회장>

715억원 안 낸 조동만

세금 1년 넘게 5억 이상 체납한 2598명 명단 공개 - 신삼길도 351억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 등 5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고액 체납자 2598명의 명단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됐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개인 1662명과 법인 936개 업체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내용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에 28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조동만 한솔그룹 전 부회장이 양도소득세 등 715억원을 체납해 개인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의 외손자인 조 전 부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34억1600만원의 지방세도 체납한 상태다.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도 부가가치세 등 351억원을 체납했고, 전윤수 성원건설 대표는 증여세 224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가운데서는 도매업을 하는 삼화금은(대표 권순엽)이 부가가치세 등 495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국세청은 이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해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명단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자 국세청 홈페이지의 각 세무관서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고액 상습 체납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된 명단을 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연결했다.

/김민지기자 minu@metroseoul.co.kr

깜찍한 맵시 자랑 2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회관에서 열린 '제3회 어린이 한복 홍보대사 선발 및 우리의 멋 한복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깜찍한 런웨이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600곳 '성폭력 특구' 중점 관리

다세대·공원·골목 등 CCTV 늘리고 보안등 LED로 교체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내년부터 시내 600곳을 '성폭력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다세대·원룸밀집지역(208곳), 공원(65곳), 아파트(24곳), 골목길(165곳), 재개발·재건축 지역(41곳), 유흥가(100곳) 등 성폭력 범죄 6개 유형에 따른 맞춤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다세대·원룸 밀집지역 208곳에는 방범창 잠금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 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는 건물별 담당 경찰관을 지정한다. 공원은 안전 등급을 레드(적색)·옐로(황색)·블루(청색) 등 3등급으로 분류해 위험도가 높은 레드 등급부터 조명을 개선하고 CCTV를 설치한다.

노후 아파트는 지하주차장·계단 등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옥상·지하 잠금 출입을 차단하는 등 '여성 안전 아파트'로 운영한다. 골목길 165곳에는 연말까지 CCTV 340대를 추가 설치하고 내년에 보안등 2750개를 밝은 LED 등으로 교체한다.

또 술 취한 여성을 노린 성범죄 위험이 큰 유흥가에는 안심 귀가 스카우트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조선영기자 (rus)

강서구 내년 예산 11% 증액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올해보다 11.2%(514억원) 증가된 5107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구는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적 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조정 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마련했다.

송파구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자전거도로 등에 안전·보조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성 강화에 나섰다.

구는 양재대로 등 총 38개소에 안전표지판 31개, 보조표지판 41개 등 총 72개의 안전시설 설치를 다음 달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기성복지관 저소득층에 연탄

대전시설관리공단 기성종합복지관이 지난 26일 기성동 지역 내 소외된 이웃 20가구에 연탄 총 4000장을 지원했다.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후원기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저소득 홀몸 어르신, 한부모 가정 등에 직접 전달했다.

바코드 찍으면 "학생 같아 보여서요" "동안이시다"

편의점 술 살때 안내 음성

앞으로 편의점에서 술을 살 때면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자동 안내 음성이 나온다.

28일 서울시는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C SPACE 등 4개 편의점의 전국 1만7060개 가맹점(서울 3798개)에서 고객이 술을 살 때 안내 음성이 자동으로 나오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점원이 제품 바코드를 찍으면 음성이 나오는 방식으로 돼 있다.

지난 8월 개최된 청소년 음주 조장 환경 개선 아이디어 제안대회 예시 대상을 받은 양재고등학교 1학년 박진우·김시현 학생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음성 시스템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김시현 학생의 이모인 성우 박윤경씨의 재능기부로 만들어졌다.

음성은 "학생 같아 보여서요" "동안이시다" "학생이시죠?" 등 4가지 중 선택해 송출할 수 있도록 했다. /조현정기자

PC방은 '실내금연' 무법지대?

1주일 단속에 321명 적발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일부터 8일까지 전국 150㎡ 이상의 음식점·호프집·PC방 등 4만9955개 공중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금연 단속을 벌인 결과 633명이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시설 종류별로는 PC방이 3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형빌딩(123명), 터미널(29명), 공공청사(28명), 대학교(18명)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금연구역 확대 정책의 효과로 공중시설의 공기질이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공개됐다.

서울의료원 건강환경실에 의뢰해 한식집과 호프집 146곳의 실내 공기를 전면 금연 시행 전(4월 29일~6월 28일)과 후(8월 1일~9월 27일)로 나눠 조사한 결과 150㎡ 이상 호프집 34곳의 PM2.5 농도가 41%(93.2→55.3㎍/㎥)나 준 것으로 나타났다. PM2.5는 지름이 2.5㎛ 이하인 미세먼지로 담배연기에 많은 양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간접흡연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

시인 김춘수 타계

2004년 11월 29일 '꽃의 시인' 김춘수가 8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경남 통영 출신의 모더니스트 시인 김춘수는 초기엔 릴케의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고 현실참여 ... 197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순수와 참여 논쟁에서 벗어나 관념을 배제하고 사물의 이면에 감춰진 본질을 파악하려 한 '무의미시'를 주창했다.

인도 차량진입 막으려다 사람 잡을라…화강암 재질에 시각장애인 부상 속출

'거리의 흉기' 된 볼라드

인도 등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가 오히려 시각장애인들의 '지뢰'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볼라드는 지나치게 낮거나 충격을 흡수할 수 없는 석재 등을 사용해 시각장애인들이 자주 걸려 넘어지고, 넘어지면서 바닥을 짚다가 손목을 다치는 등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국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지 말 것 ▲밝은색의 반사 도료 등을 사용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높이는 80~100cm, 지름은 10~20cm, 간격은 1.5m 안팎으로 할 것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 사용 ▲시각장애인에게 충돌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앞에 점형블록을 설치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볼라드는 거의 찾기 힘든 실정이다.

이와 관련, 서지재등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09년 만들어져 그 이전에 설치된 볼라드가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

최근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오른쪽 팔목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은 시각장애인 김원수(61·여)씨는 "나같은 많은 시각장애인이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있나"며 "볼라드가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인도를 침범한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면 될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그는 안산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내 "안산시는 253만2400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볼라드를 교체하는 데 드는 부담 등을 고려해 안산시의 책임을 40%만 인정했다.

김강원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팀장은 "불법 주차를 막는다는 명분하에 설치된 볼라드는 시각장애인에게는 큰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장벽"이라며 볼라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저소득층 디지털TV 싸게 산다

다음달부터 30~40%↓

내달부터 저소득층은 디지털 TV를 시중 가격보다 30~40% 싼 값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저소득층에 대한 디지털 TV 보급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전체 저소득층 304만 가구 중 디지털 TV가 없는 약 105만 가구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2017년까지 시중가보다 30~40% 저렴하게 디지털 TV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케이블 TV 등 유료 방송에 대한 복지형 상품(3000~4000원) 제공과 요금 감면 혜택도 병행하기로 했다. 혜택을 받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이다. /조형진기자 hjc

올겨울엔 '탄소다이어트'　김재윤 국회 국제경기특위 위원장과 조환익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 저탄소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민성 서울종합예술학교 이사장(왼쪽부터)이 28일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서울종합예술학교 학생들과 함께 저탄소 인천아시안게임을 기원하는 '올겨울 탄소다이어트'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인 70% "복권 당첨되면 회사 그만두겠다"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은 복권에 당첨되면 직장을 관둘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는 직장인 8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5%(615명)가 평소 복권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일주일에 복권을 구매하는 개수는 평균 1.9개로 집계됐으며 1개(58%), 2개(21.4%), 5개(12.5%) 등의 순을 보였다.

복권에 당첨될 경우 당첨금의 용도로는 "저축·부동산·주식 등 투자를 하겠다"는 응답이 26.9%로 가장 많았다.

한편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69.4%)은 복권에 당첨된다면 직장에 사표를 내겠다고 밝혔다. /임은혜기자 unme@

中하문대 유학 가면 미국대학 학위

미주리대와 학위 MOU

미국 미주리대학교와 중국 최초 사립대인 하문대학교가 지난 26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정규 해외 학위 프로그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로 한국 학생이 하문대에 유학하면 중국 정식 유학생 신분으로 미주리대의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하문대에서 1학년, 미주리대에서 2~4학년을 마치고 미주리대학교의 정식 학위 졸업장을 받는 코스다. 두 대학이 직접 해외 학위 프로그램을 체결한 만큼 지난달 교육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1+3 유학 프로그램 등과 같은 그동안 병폐는 해소될 전망이다.

연간 학비는 2만6500달러(약 3100만원). 문의 02)3001-3177 /손다혜기자

경희사이버대 공모전 시상식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가 지난 26일 '제8회 한국어 및 한국문화지도 체험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우수상에는 김욱란·이영숙·양정자(한국)의 '한국어 교사의 일취월장 스토리'가 선정됐다.

원광디지털대 신·편입생 모집

원광디지털대학교가 다음달 2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01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2841명을 모집한다. 모집 학과는 웰빙건강학부, 한국문화학부, 실용복지학부 등 총 3개 학부 15개 학과다.

문의 1588-2854

metro Russia

Студенты устроили бо роботов

metro Canada

Villeray. Bilan satisfais pour le compostage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퇴비화 사업 성공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진행하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퇴비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간 모은 음식물 쓰레기 양이 무려 123t에 달한 것.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3분의 1 기간 동안 이미 전체의 50%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모았으며 총 8300여 가구가 참여해 이번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프로젝트는 2014년 12월까지 계속되며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범위 및 기간이 확대될 전망이다.

metro Sweden

Moské utsatt för skadegörel

무슬림 사원에 돼지다리 투척 수사 착수

최근 스웨덴에서 무슬림 사원에 돼지 다리를 투척해 유리창을 부수는 등 기물파손 사건이 벌어져 물의를 빚고 있다. 무슬림 신자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종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기물파손이 아닌 특정 민족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범인을 쫓고 있다. 사건이 벌어지자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범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무슬림 사원 주변 경계를 강화했다.

비보이 뺨친 로봇 '댄스배틀'

대학생이 만든 안드로이드 로봇 총출동 · 영화 방불케한 일대일 격투에도 관객 환호성

탁월한 전투력과 댄스 실력을 자랑하는 리틀 트랜스포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트랜스포머를 연상시키는 안드로이드 로봇들이 다양한 게임과 전투 대전을 벌이는 엔지니어 스포츠 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로봇은 모두 대학생들이 자체 기술로 개발, 관심을 모았다.

수동으로 로봇을 조종해야 했던 기존 안드로이드 로봇들과는 달리 이번에 개발된 로봇들에는 자체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다. 제작자가 조종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다.

1라운드는 미로를 가장 먼저 통과하는 로봇이 이기는 '미로 탈출하기' 게임으로 시작됐다. 경기에 출전한 로봇들은 장애물이 나타나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머리로 장애물 벽을 들이박는 등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로봇 주인들은 규칙상 손으로 로봇을 만지거나 제어할 수 없었다.

모스크바 민족우호대학(루덴)의 로봇 개발자 보리스는 "우리 로봇은 평평한 표면에서 이동하도록 프로그래밍돼있는데 이곳 바닥은 울퉁불퉁해 재빨리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했다"며 "로봇다리에는 36개의 센서가 작동 중이라 민감한 장애물도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라운드는 로봇들의 흥겨운 댄스 무대였다. 로봇들이 음악에 맞춰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지켜보던 관중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로봇들은 배경음악에 맞춰 팔을 위로 치켜드는가 하면 머리를 좌우로 움직이거나 다리를 꿈틀거리는 등 동작으로 어색하지만 깜찍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날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무대는 로봇들의 전투였다. 긴 속눈썹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린 여성 로봇 프라스코비아는 상대 로봇을 맞아 저돌적으로 돌진하는가 싶더니 이내 제자리에 멈춰서 관중들을 당황하게 했다. "왜 움직이지 않느냐? 고장 난 것이냐?"는 관중들의 야유에 프라스코비아의 개발팀인 '마미'는 "기다림 전략"이라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이어진 라운드에서 프라스코비아는 초반부터 이리저리 도망 다니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 뒤쫓아온 상대 로봇은 때를 놓칠세라 재빨리 공격했다. 결국 남성 로봇 마이가 승리를 거머쥐었다.

마미팀은 "로봇들의 전투가 생각보다 지연됐다"며 "오늘 무대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해 다음 경기에서는 보다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다리야 부티노바 기자 · 정리=조선미기자

metro France

초호화 자연마을 10년후 완공목표 파리외곽에 조성

파리에서 동쪽으로 30㎞ 떨어진 센에마른주에 대규모 자연 마을이 조성된다.

관광지 조성을 위해 시작된 이번 프로젝트는 앞으로 10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2016년 봄 관광객들에게 처음으로 건설 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1000여 개의 숙박시설이 조성될 자연 마을은 파리 외곽에 위치한 디즈니 랜드와 근접해 연간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회는 지난 21일 자연마을 조성을 위한 예산 4000만 유로(약 574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의회가 제공하는 투자비는 주변 도로 건설 및 자연마을을 상징하는 '지열 호수'를 만드는 데 쓰인다. 지열호수는 2500㎡에 이르는 호수로 지열을 통해 30도를 유지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지방 의회의 사회당 의장 장폴 우숑은 "자연마을 사업은 앞으로 다가올 15년 중 가장 큰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16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센에마른주의 환경론자들은 이번 사업에 대해 "사치스러운 관광을 위한 값비싼 프로젝트"라고 표현하며 "시민을 위한 예산은 600만 유로(약 86억원)에 그치는 반면 인공 호수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비용은 어마어마하다"고 밝혔다.

반대 여론이 크지 않을 경우 공사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현장에선 지난여름부터 예비 공사가 시작된 상황. 다음달 31일부터는 투자금 확보를 위해 부동산 구입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를 모집한다.

/엔보 이브롬 기자 ·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market index <28일>

코스피	코스닥
2045.77 (+16.96)	515.52 (+3.87)

금리	환율
2.89 (+0.02)	1060.00 (-2.50)

뉴스&뉴스

"P&G 제품 사면 1%기부" 한국 P&G와 롯데마트는 다음달 4일까지 전국 롯데마트 전 매장에서 P&G 행사 제품을 구매하면, 매출액의 1%가 적립되며 해당 기금은 보육시설 어린이 학습 및 재능 개발 지원금으로 전달된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

카드론 0.9%포인트 내린다

● 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등 7개 전업카드사는 최근 대출금리모범규준 준수를 위해 카드론을 평균 0.9%포인트, 현금서비스를 0.6%포인트 인하하겠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특히 현대카드는 카드론 금리를 2%포인트, 신한카드는 현금서비스 금리를 1.2%포인트 인하한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신규 취급분부터 카드론 연평균 금리는 15.5%, 현금서비스는 21.4%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박선옥기자

지난달 경상흑자 사상최대

●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가 95억1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흑자 행진이 21개월째 이어졌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는 승용차,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에다 서비스수지 흑자폭도 커진 데 힘입어 사상 최대 흑자를 보였던 지난 5월(86억4000만 달러)을 넘어섰다. /김연세기자

신설법인수 한달새 24% 증가

●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신설 법인 수는 6445개사로 전달보다 24.3% 늘어났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신설 법인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래 10월 수치로는 가장 높은 기록이다. 올해 1~10월 누계는 6만2781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2391개사보다 0.6% 늘어났다.

연령대별로는 30세 미만과 40대, 50대 사업자가 신설한 법인이 전달보다 크게 증가했다. /김은혜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61
회장 겸 발행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광혁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91~3
부산광고문의 051)752-9100
독자센터 (02)721-9715
2005년 5월 24일 창간 서울특별시 등록 서울 가00059

코스피 올해 성적 마이너스… 주요국 중 47위

올해 한국 증시는 글로벌 주요국 지수 가운데 최하위권 성적을 기록했다.

2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5일까지 코스피 수익률은 -0.74%로 전 세계 54개 주요국의 59개 지수 중 4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코스피 연간 수익률은 11.21%로 59개 지수 가운데 36위에 올랐으나 올 들어 더 낮은 순위로 밀려났다. 전체 지수 중 44개가 플러스 수익률을 보였고 마이너스는 15개였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닛케이지수가 50.25%로 3위에 올랐고, 대만 가권(5.28%), 필리핀(2.44%), 인도네시아(-0.27%), 싱가포르(-0.66%)가 한국보다 높았다.

미국 다우(19.83%), 나스닥(28.35%)을 포함해 독일(19.56%), 프랑스(15.21%), 영국(11.07%) 등 선진국 증시가 특히 호조를 보였다. /유현정기자

오래 살건데 '오래 먹는' 펀드 살까

헬스케어업종 고령화시대 맞아 수익률 '꾸준'… 건강식품업계 '두각'

고령화시대를 맞아 헬스케어 업종이 가늘고 길게 가는 투자 유망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름이 생소한 헬스케어 관련 업체들의 주가는 올 들어 크게 뛰며 투자자들 곁으로 바짝 다가섰다.

28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설정액 10억원 이상인 헬스케어 펀드 8개의 수익률은 연초 대비 5.30%를 기록했다.

해외 금융펀드(28.76%)나 컨슈머펀드(18.31%), 배당주펀드(8.13%), 가치주펀드(6.38%) 등에 비해선 저조하지만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거나 1~2%대의 수익만을 낸 것에 비해선 양호하다.

개별 펀드를 보면 글로벌 헬스케어주에 투자한 상품의 수익률이 돋보인다. 해외 헬스케어 시장에 투자하는 '동부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주식)'의 여러 유형 상품은 올 들어 31~32%의 수익을 냈다. 이 펀드 상품은 미국 의약품 제조사인 머크, 다국적 제약회사인 노바티스, 프랑스계 제약회사인 사노피, 미국계 제약회사인 화이자 등 해외 헬스케어주에만 투자한다.

국내 헬스케어 시장에서는 기존 제약업체나 의료기기 업체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코스닥 시장에서 유산균 국내 1위 업체인 쎌바이오텍은 올 들어 6.55% 올랐다. 지난 10월 31일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내추럴엔도텍은 상장 한 달여 만에 7.63% 상승했다. 이 업체는 50세 여성 갱년기 완화 효능 건강식품을 제조한다.

자양강장제와 비만치료제 등을 판매하는 대원제약의 주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연초 대비 16.85% 뛰었다.

전상용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중국, 한국, 일본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건강 관련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며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지난 6년간 매년 9.3%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 시장의 예상 규모는 1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세는 글로벌 수준을 웃돈다. 전 연구원은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이 기간 매년 5.3%씩 성장해 올해 예상 시장 규모는 1020억 달러(약 108조2500억원)"라고 덧붙였다.

/신원선기자 hjkim1@metroseoul.co.kr

은행 예금·대출금리 사상 최저

각각 연 2.63%와 4.46%

지난달 은행의 예금과 대출 평균 금리가 동시에 사상 최저치를 나타냈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평균 저축성 수신금리는 전달보다 0.01%포인트 하락한 연 2.63%로 집계됐다. 이는 199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저치인 8월과 같은 수준이다.

대출금리는 연 4.46%로, 0.08%포인트나 떨어지면서 지난 6월(4.52%)의 종전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따라 여·수신금리가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동시에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시장금리 하락세의 영향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저금리 대출 등 특이 요인까지 가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신금리 중 정기예금을 보면 평균 2.59%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금리대별 가입액 비중은 2~3% 미만이 전체의 93.7%를 차지했고, 2% 미만이 4.0%였으며 나머지(2.3%)는 3~4% 미만이었다.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연 3.81%로 0.01%포인트 떨어졌으며 소액 가계대출은 5.87%로 0.17%포인트 상승했다. 잔액 기준 총 수신금리는 연 2.25%, 총 대출금리는 4.78%로 각각 전월보다 0.04%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예대마진을 보여주는 총 수신금리와 총 대출금리의 차이는 전달과 같은 2.53%포인트다.

/김민지기자 mmp@

러시아서 발행한 '소치 동계 올림픽' 기념주화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모델들이 '2014 소치 동계 올림픽' 공식 기념주화를 소개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이번 기념주화는 다음달 2일부터 공식 판매권자인 풍산 화동양행을 통해 전국 은행 본·지점에서 예약 접수 판매된다. /뉴시스

찬순이 경제학

겨울옷 '비용제로 관리법'

니트는 신문지 끼워접고 모직코트는 솔질

옷장 속에 묵혀둔 두터운 겨울외투와 스웨터를 꺼낼 시기다. 주섬주섬 옷장에 넣어뒀던 겨울옷들을 정리하다 보면 구김과 눅눅해진 옷 때문에 뜸뜸한 맘을 버릴 수 없다.

매번 드라이클리닝을 하자니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한숨부터 절로 나온다. 그래도 방법은 있다. 조금의 수고로움만 들이면 내년 겨울에도 새 옷같이 입을 수 있다.

우선 겨울 스웨터 니트류는 옷걸이에 걸지 말고, 잘 접어서 보관한다. 절반 정도 접어 가운데에 신문지를 끼워넣어서 보관하면 좋다. 방충제보단 라벤더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모직 코트는 부드러운 솔로 가볍게 먼지를 털어내고 보관하면 된다. 보관할 땐 가급적 건약제나 신문지 등을 이용해 습기를 방지하고, 방충하면 효과적이다.

모피의 경우 브러시를 이용해서 먼지를 잘 털어주고, 비나 눈에 젖었을 땐 물기를 충분히 털어낸 뒤 마른 천으로 닦고 잘 건조시킨다.

보통 드라이크리닝 후에 먼지 방지용 비닐을 씌운 채로 보관하는데, 반드시 비닐 등을 벗겨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해서 드라이크리닝 시의 화학 성분을 충분히 없애야 한다.

집에서도 손쉽게 세탁할 수 있다. 때가 잘 묻는 흰색 옷은 소다 등을 물에 붓거나 레몬을 담근 물에 삶아 오염된 부분을 세탁하면 새하얗게 세탁할 수 있다. 셔츠의 손목이나 목 뒤에 찌든 때는 샴푸로 애벌빨래를 한 후에 빨아주면 갈라나 소매 등의 때가 쏙 빠진다. 기루비누도 절약할 수 있다. /박선옥기자

CNN이 엄지 열번 든 '한국'

인터넷·신용카드 사용·직장 회식문화 등 10개 항목 '세계 최고'로 뽑아

"인터넷 환경, 신용카드 사용, 일중독 직장 내 음주 문화, 스타크래프트 게임, 소개팅, 성형수술, 획기적인 화장품, 여자 골프선수, 항공사 승무원 서비스."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런 모습들이 외신을 통해 세계 최고로 거론돼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CNN은 28일(현지시간)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10가지'라는 기사에서 "한국은 국토 면적이 세계 109번째쯤에 인 되는 작은 나라지만 이 10개 항목 만큼은 두각을 나타낸다"고 보도했다.

CNN은 인터넷·스마트폰 문화(wired culture)를 가장 먼저 거론했다.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82.7%로 세계적 수준이며 전체 인구의 78.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CNN은 "한국인들은 상점에서 돈을 내거나 지하철에서 실시간으로 텔레비전을 보는 데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며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으면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인들의 신용카드 사랑도 유별나다고 지적했다. CNN은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년 전 기준으로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모든 택시가 신용카드 기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중독과 직장 내 음주 문화도 한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꼽혔다.

CNN은 "한국 어느 도시에 가든 해 뜨지가 않하는 근로자들 때문에 밤늦게까지 빌딩에 불이 환한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일하지 않을 때는 소주를 마시면서 거래 성사를 축하하거나 슬픔을 덜어버린다"고 꼬집었다.

한국의 게임 문화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CNN은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다른 나라에서였다면 구제 불능의 괴짜(nerd)였을 이들을 최고 소득자이자 유명인으로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화장품에 대한 실험 정신, 각종 프로대회에서 선전하고 있는 여성 골퍼들, 항공기 승무원들의 훌륭한 서비스, 젊은이들의 소개팅 문화, 외국에서 몰려들 정도로 인기 있는 성형수술의 메카 등도 한국만의 특징이라고 CNN은 전했다.

/이국현기자 kmaehwa@metroseoul.co.kr

간병로봇의 밀착케어 "거리 좀 둘까요?"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막을 올린 국내 최대 대학생 정보기술(IT) 박람회인 한이음 엑스포 2013 에서 목원대학교 관계자들이 활체어형 간병로봇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 APT 1채 팔면 전남서 5채 산다

지역별 상위 10% 아파트값 평균이 가장 비싼 지역과 가장 싼 지역간 5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28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서울지역 매매가 상위 10%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 6170만원에 달했다. 이는 가장 낮은 전남의 2억5043만원보다 무려 5.4배 높은 금액이다.

서울에 이어 경기가 6억4199만원, 부산이 5억680만원, 인천 5억451만원, 울산 4억346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고가의 대형 아파트가 집중된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위치한 단지들이 매매가 상위 10%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기는 분당, 판교, 광교 등 신도시 지역 내 위치한 단지들이,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내 아파트가 매매가 상위 10%에 포진됐다. /이선애기자

기업 순이익 점점 악화 1000원 팔면 고작 47원

28일 통계청이 상용근로자 5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 3억원 이상인 국내 기업 총 1만2010곳을 대상으로 한 '2012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 결과' 발표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국내 기업의 매출액 1000원당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47.2원으로 전년 대비 4.6원 줄었다. 이같은 국내 기업의 순이익 수준은 금융위기 당시 수준보다도 떨어진 것이다. /이혜영기자 | ell403@

신한은행 '따뜻한 겨울나기' 66억 모금

신한은행 임직원들이 매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이 직접 기부에 참여하는 '사랑의 클릭'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네이버 해피빈에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창이 운영 중이며 네티즌들이 모금한 금액에 신한은행 임직원들의 기부금을 더하는 매칭그랜트 후원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 임직원들은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약 66억원을 모금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올해는 네티즌도 함께하는 기부 참여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이 지원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불황 속 건설업계 '온정나눔' 더 뜨겁네

최악의 건설 경기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건설업계의 온정이 끊이지 않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SK건설은 전날 서울 중구 을지로 '지 플랜트(G plant)' 사옥에서 희망메이커 후원가정 지원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희망키트' 제작 행사를 개최했다. 희망메이커는 임직원 기부로 마련한 기금으로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고 다양한 교류 활동을 갖는 사회공헌활동이다.

행사 참가자들은 보온이불, 방풍커튼, 문풍지, 보온장갑 등 14개 방한 물품과 후원 대상자에게 직접 쓴 크리스마스 카드를 희망키트 상자에 담았다.

한진중공업은 부산과 서울에서 소외받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부산에서는 임직원들이 모금을 통해 사들인 김장 김치 2000여 포기를 지역 주민 200여 명과 직접 담근 후 포장해 영도구 관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 1000여 세대에 배달했다.

또 서울에서는 임직원을 포함한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3000포기가 넘는 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대우건설도 서울·경기지역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을 초청, 본사에서 '2013 대우건설 사랑나눔 콘서트'를 최근 개최했다. 총 11개 시설 350여 명의 장애인과 직업재활사,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했으며 대우건설 임직원과 외부 재능기부팀들이 노래와 춤, 악기 연주 등의 공연을 선보였다.

이외에도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등이 건설업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청소년들에게 공부방을 지원해주거나 소외계층에 집을 지어주고,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산옥기자 pearl@

SKT 이번엔 '3배 빠른 LTE-A'

"영화 한편 받는데 28초" 새 광대역 서비스 시연

KT에 이어 SK텔레콤이 광대역 롱텀에볼루션(LTE)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전략을 발표하며 이동통신업계 점시진을 그렸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지난 8월 주파수 경매에서 2.6GHz 대역을 확보하며 망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8일 분당 사옥에서 언론 시연회를 열고 1.8GHz 주파수 20MHz 대역폭과 800MHz 주파수 10MHz 대역폭을 캐리어어그리게이션(CA) 기술로 묶어 최대 225Mbps 속도를 제공하는 3배 빠른 광대역 LTE-A를 선보였다.

SK텔레콤이 내년 하반기 225Mbps 속도를 지원하는 칩셋을 출시하는 대로 스마트폰 기반의 광대역 LTE-A를 상용화할 방침이니 이렇게 광대역 LTE-A가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가면 800MB 용량의 영화 한 편을 28초면 내려받을 수 있다. 같은 분량의 영화를 내려받을 경우 3G는 약 7분24초, LTE는 약 1분25초, LTE-A는 43초 소요된다.

앞서 KT 역시 내년 225Mbps 속도의 광대역 LTE-A 서비스를 계획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 전무는 지난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통신사 최초로 서울지역에 이어 수도권 전 지역에도 광대역 LTE를 구축 완료했다"며 "내년 하반기에는 광대역 LTE와 LTE-A가 모두 수용 가능한 전용 칩셋이 출시되는 시점에 최대 225Mbps급 속도로 업그레이드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자신들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라는 데 반발했다. 오히려 경쟁사와 달리 내년이 광대역 LTE 시장에서 반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계획대로 2.6GHz 대역을 활용한 광대역 LTE 서비스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연내 시작할 것"이라며 "경쟁사 대비 다소 늦었지만 가입자 수 대비 가장 넓은 주파수 대역(800MHz, 2.1GHz, 2.6GHz)과 폭을 갖고 있어 고객들이 타사 대비보다 빠른 속도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세대 네트워크 서비스 역시 경쟁사는 두 개의 주파수 대역을 묶어 225Mbps 속도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우리는 3개 밴드를 결합해 최대 300Mbps 속도의 서비스 제공을 준비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SK텔레콤 광고 모델인 그룹 소녀시대의 윤아(오른쪽)와 에프엑스(f(x))의 설리가 28일 성남시 수내동 SK텔레콤ICT기술원에서 '3배 빠른 광대역 LTE-A'를 선보이고 있다.

패러렐즈 '아이패드 원격앱'

데스크톱 가상화 솔루션 업체 패러렐즈는 28일 아이패드용 원격 지원 앱을 출시했다.

이 앱이 있으면 아이패드에서 PC나 맥(Mac)에 원격으로 접근해 윈도나 맥의 응용프로그램을 아이패드 앱처럼 쓸 수 있다. 한마디로 가정이나 회사에 있는 컴퓨터를 아이패드처럼 이용하는 셈이다.

윈도 PC용은 현재 무료로 베타 버전을 제공하고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패드에서 구동하는 앱은 개발 중이다.

아이패드용 패러렐즈 앱은 14일간 무료 시험판을 지원하며 1년 이용료는 79.99달러다. 이 앱은 아이패드2, 아이패드3, 아이패드 미니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박상훈기자 park@

티브로드 '브로닌' AFT에

티브로드(대표 이상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TV 포럼 & 마켓(ATF)'에 '브로닌의 전통시장 담시기'로 참가한다.

ATF는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가 모여 프로그램을 거래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아시아에서 가장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마켓이다.

올해 KISA가 지원한 양방향 프로그램 중 티브로드를 포함해 KBS미디어, IB미디어넷 등 8개 업체가 이번 ATF에 참가해 전시부스 운영과 쇼케이스 등을 통해 국내 양방향 방송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릴 예정이다.

티브로드가 참가작으로 출품하는 '브로닌의 전통시장 담시기'는 실시간 지역 채널에 전통시장 관련 정보를 더하고, 연동형 양방향 데이터 방송과 VOD,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결합한 콘텐츠다.

/김재곤기자 kost@

"키스로 기부하세요" 28일 N서울타워 키스트리 앞에서 모델들이 '키스 파라다이스-1004의 키스' 이벤트의 개최를 알리며 키스신을 연출하고 있다. N서울타워 앞에 설치된 키스트리 내에서 커플이 키스할 때마다 1회당 1004원의 기부금이 적립되는 행사로, 참가자가 1004쌍이 넘으면 적립금은 CJ도너스캠프를 통해 중국 농민공학교의 꿈나무 공부교실에 지원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장년·청년 일자리 희비

작년 전체 2.6% 증가 속 60대 14%↑, 20대 2.6%↓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이 갈수록 극심해질 전망이다.

일자리 증가 속도는 둔화된 가운데 20대 일자리는 줄고 50대 이상에서는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 행정통계'를 보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12년 말 1591만3000개로 1년 전보다 40만8000개(2.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중 30대가 점유한 일자리가 470만1000개(29.5%)로 가장 많았고, 40대(421만6000개·26.5%), 20대(302만5000개·19.0%)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 50대는 20만4000개(7.9%), 60세 이상은 12만4000개(13.9%) 늘었고 40대도 12만3000개(3.0%) 증가했다. 반면 20대는 8만 개(-2.6%) 줄었다. 청년 실업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방증한 셈이다.

특히 신규 대체 일자리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8%(138만2000개)로 가장 높아 20대의 고용 안정성이 취약함을 드러냈다.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 중 남성의 일자리는 992만2000개(62.3%), 여성은 599만2000개(37.7%)로 남성의 비중이 컸다. 1년 전에 비해 여성이 점유한 일자리는 25만9000개 늘었고, 남성은 15만 개 증가에 그쳤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국명기자 kmlee@

내년 만기 회사채 41조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규모가 4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 해운 등 취약 업종의 회사채 만기가 몰려있는 내년 2분기에는 한계 기업들의 자금 조달 압박이 극심할 전망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삼성증권에 따르면 2014년 만기가 돌아오는 일반 회사채 규모는 모두 41조2000억원으로 올해 38조7000억원보다 2조5000억원 늘어날 예정이다.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는 24조2000억원이지이며 하반기에는 17조원 규모다. /김현정기자

미래부 '창조경제타운' 사이트 대폭 개선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아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는 '창조경제타운' 사이트에 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등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지난 9월 30일 서비스를 개시한 창조경제타운에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창조 아이디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기존 사이트 개선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신규 서비스를 구축해 29일부터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와 민간의 260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는 '아이디어 사업 지원정보'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검색과 상세 검색 기능을 마련했다. 또한 페이스북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활용한 SNS 로그인 방식을 도입해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한편 창조경제타운 회원 수는 지난 27일 기준 1만5275명, 접속자는 15만6691명이며, 등록된 아이디어는 총 3435건에 달한다.

/이재영기자 ljy0403@

美 홀린 '콘솔의 진화'… 한국도 플레이?

최근 출시된 PS4·엑스박스원 북미서 판매 돌풍
온라인·모바일 게임 익숙한 국내서 통할지 '의문'

가정용 게임기인 콘솔의 인기 경쟁이 뜨겁다.

지난 15일 소니가 북미에서 선보인 플레이스테이션4(PS4)(왼쪽 사진)는 출시 하루 만에 100만 대가 팔렸다. 일주일 뒤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은 '엑스박스 원'(오른쪽) 역시 24시간 만에 100만 대가 팔려 무승부를 기록했다. 양사는 최대 500만 대 판매를 확신하고 있다.

두 기기는 게임은 물론 TV와 연결해 영화를 보고 컴퓨터처럼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기기로 진화했다. 엑스박스 원의 경우 스카이프 통화 기능을 추가해 말 그대로 홈 엔터테인먼트 허브 역할을 한다.

그런데 두 제품이 한국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까.

일단 소니가 다음달 17일 PS4를 49만8000원에 출시하기로 확정했다. 엑스박스 원은 아예 해를 넘긴다. 빨라도 내년 5월 어린이날을 전후한 시기일 가능성이 크다.

사실 콘솔게임기는 국내에서 그다지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무엇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게임과 PC방 환경이 콘솔 시장의 성장을 막고 있다.

온라인게임은 다수의 유저가 서로 소통하며 플레이하는 이른바 '열린 플레이' 라면, 콘솔은 혼자 하거나 가족이나 친구 2~3명이 즐기는 '닫힌 플레이'가 특성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보급률,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인들은 게임을 하더라도 소통이 병행되는 것을 선호한다.

아울러 모바일게임이 대중화되고 있는 것도 콘솔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게임은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휴대성이 가장 뛰어난 스마트 기기가 게임을 접하는 첫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북미·유럽과 한국의 게임 문화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 국내에서는 콘솔게임을 '애들이나 하는 것' 이라고 여기지만 해외에서는 온 가족이 즐기는 여가 문화로 생각한다.

게임 유저의 눈높이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는 해외 시장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온라인게임에서 만끽했던 화려한 영상과 그래픽, 극장을 방불케 하는 실감 나는 사운드, 질리지 않는 스토리에 익숙해진 소비자가 확장성이 낮은 콘솔 기기에서 이같은 만족감을 얻기는 어렵다.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PS4와 엑스박스 원이 7년 만에, 그것도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나와 '콘솔이 부활했다'고 하기에는 이르다. 온라인게임의 완성도, 모바일게임의 편리함을 따라잡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구글 '음성검색' PC서도 된다

말로 검색을 하는 구글의 '음성 검색 핫워드' 기능이 PC에도 들어간다. 이 기능은 모바일용 안드로이드 4.4 '킷캣'에는 기본으로 포함됐으나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으로 들어오는 것은 처음이다.

구글은 28일 크롬 웹 스토어를 통해 크롬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확장 기능(익스텐션)인 '구글 음성검색 핫워드' 베타 버전(http://goo.gl/PdVTZM)을 배포 중이다.

화면, 버튼, 키보드 등을 누르지 않고 곧바로 음성 인식이 가능해 매우 편리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이 기능은 크롬에서만 실행되며,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파이어폭스 등 다른 웹 브라우저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애플도 시리와 같은 유사 기능이 있으나 버튼을 눌러야 작동하고 애플의 모바일 기기에서만 구동된다는 한계가 있다. /박성훈기자

'포코팡' 구글플레이 5위에

인기 모바일 퍼즐게임 '포코팡'이 구글플레이 매출 5위에 올랐다.

NHN엔터테인먼트(주)는 자사가 서비스하고 트리노드가 개발한 포코팡이 지난 27일 기준 구글플레이 매출 톱 5에 올랐다고 28일 밝혔다.

NHN엔터테인먼트 정우진 사업센터장은 "포코팡은 일일 사용자가 2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활발한 콘텐츠 업데이트와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로 인기몰이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코팡은 오는 29일 출시 50일을 기념해 게임 내 아이템 구매 수단인 '게리' 제공 등의 이벤트를 다음달 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장윤희기자

블루투스 헤드셋 'LG 톤플러스' 감동이야! LG전자가 블루투스 헤드셋 'LG 톤 플러스(HBS 3000)'를 23일 한국을 시작으로 북미 아시아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고 25일 밝혔다. LG 톤 플러스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등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모든 IT기기와 연결이 가능하며 다중 접속 기능을 적용해 2개의 기기와 동시에 연결할 수도 있다. /LG전자 제공

클래식 보는 '멋' 디지털 찍는 '감'

니콘 DSLR 'Df' 매진 행진

클래식의 감성에 디지털의 성능을 더한 니콘의 FX 포맷 DSLR 'Df'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광학기기 전문기업 니콘이미징코리아는 지난 19일부터 진행한 Df의 예약 판매에서 준비한 물량이 매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예약 판매는 Df 출시 기념으로 니콘 공식 매장을 비롯한 전국 23개 매장에서 진행됐으며 초도 물량 100대를 포함해 추가로 확보한 물량 30대까지 모두 매진되는 등 총 130대가 판매 완료됐다.

Df는 니콘 FX 포맷 DSLR 카메라 중 가장 작고 가벼우며 직관적 다이얼로 조작성이 한층 강화된 제품이다. 플래그십 모델인 D4와 동등한 화질을 구현할 수 있는 이미지 센서와 화상처리 엔진을 탑재했으며 기도식 노출계 연동 레버를 채용해 클래식 카메라 렌즈도 장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Df는 28일부터 정식 판매에 들어간다. 가격은 보디 기준 328만원이며 렌즈가 포함된 가격은 358만원이다.

/이국명기자 kmlee@

꼼꼼IT리뷰 - 와콤 '크리에이티브 스타일러스'

필압 느끼는 모바일 터치펜 '섬세'

터치스크린 시대. 손가락만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성은 터치펜이 해결한다.

와콤의 최신품 크리에이티브 스타일러스는 모바일 터치펜이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필압이다. 펜에 가해지는 압력 감지 특수 공법은 그림의 농묵, 글씨의 다양한 효과를 연출하게 한다. 실제로 태블릿 PC 위에서 그림을 그려보니 붓글씨를 쓰는 것처럼 여러 가지 느낌을 표현할 수도 있다. 펜에 힘을 줬다 빼니 그러데이션 효과도 표현이 가능했다.

터치펜은 손가락을 쓰는 것보다 편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원하는 글씨를 쓰는 데 입력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돌발 상황도 벌어진다. 하지만 크리에이티브 스타일러스는 엇박자가 별로 없었다. 글씨와 그림을 원하는 대로 구밀 수 있었다. 액정 위에서 안정감 있게 선이 그어져 비뚤어지거나 밀리는 증상도 없었다.

다만 아주 섬세하거나 가느다란 느낌을 살리기는 어려웠다. 그래도 일반인이 그림을 그리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조작법도 간단하고 휴대하기 편리했다. 아이패드에 최적화된 점은 조금 아쉽다. 가격은 10만원 내 중반. /장윤희기자 unique@

삼성 스마트폰 배터리 무상AS 1년으로 연장

앞으로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배터리에 이상이 생기면 1년간 무상 AS를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2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모델에 관계없이 (배터리의) 무상 서비스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기간 연장은 부풂 현상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배터리 제조사 이랜텍이 만든 갤럭시S3의 배터리 일부에서 문제가 생기자 내년 12월까지 무상 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다른 스마트폰에서도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자 배터리 AS 기간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공지문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생기는 부풂 현상은 수명 말기에 도달해 배터리 내부의 전해액이 기화하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국명기자

홈파티 바텐더, 나야 나!

칵테일 레시피 따라하기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종 송년 모임이 시작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집에서 각자의 개성을 살려 오붓하게 즐기는 홈 파티를 선호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런 연말 분위기를 살려주는 특별한 파티를 위해서라면 칵테일이 제격이다.

◆여자친구들끼리 싱글 파티엔 크랜베리 칵테일

요즘 각광받는 칵테일 '코스모폴리탄'은 보드카를 베이스로 해 크랜베리 주스와 라임 주스를 첨가해 만드는 칵테일이다. 여성들이 선호하는 칵테일 중에는 크랜베리 주스를 넣은 종류가 많다. 예쁜 붉은 빛깔과 새콤달콤한 맛 때문인데 다양한 주종과 어울리기 때문에 홈 파티를 위한 칵테일을 만들 때 활용하기 좋다. 크랜베리 진 피즈(사진)는 얼음을 채운 잔에 약 50㎖의 진(Gin)을 넣고 레몬즙 2스푼을 섞은 뒤 크랜베리 주스와 탄산수를 취향에 맞게 넣으면 완성된다.

◆온 가족 다 함께 즐기는 무알코올 펀치 칵테일

가족 동반 모임이라면 무알코올 칵테일이 적합하다. 이때 다양한 과일 토핑으로 눈과 입이 함께 즐거운 크랜베리 펀치를 추천한다. 냉장고에 있는 남은 과일을 활용하기에도 좋다. 만드는 방법은 얼음을 넣은 넓은 볼에 크랜베리 주스 약 1.8ℓ와 오렌지 주스 1컵을 섞고 탄산수 2컵을 넣어 청량감을 더한다. 여기에 오렌지, 사과, 포도 등의 과일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 띄워주면 풍성한 느낌의 크랜베리 펀치가 완성된다.

◆어른들 모임엔 전통주 칵테일이 제 맛

어른들만의 송년 모임이라면 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도 잘 어울린다. 국순당 백세주와 사과 주스를 2대1의 비율로 섞고, 여기에 유자청과 꿀을 적당량 넣어준 뒤 얼음을 몇 조각 띄우면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전통주 칵테일이 완성된다.

또 막걸리와 사이다를 7대3 정도로 섞고, 홍삼의 제품을 조금 넣어주면 건강에도 좋은 홍삼 막걸리 칵테일을 만들 수 있다. /유현희기자

라떼자 '3000원 균일가전' 손짓 올겨울에 대표 인기 차로 떠오르고 있는 라떼차는 전년보다 113%의 매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인기 라떼차 3000원 균일가전을 연다.

삶 바꾸는 '엄마의 지혜' 청호나이스

생활가전 최초 1분 TV광고

청호나이스는 생활가전 업계 최초로 1분 소재의 TV 광고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엄마의 지혜'를 콘셉트로 하는 이번 광고는 한 가족의 일상생활에 기존 15초 광고에선 충족하기 힘들었던 청호나이스의 다양한 제품을 담아내 1분의 영화 형태로 제작됐다.

조휘김 마케팅본부장은 "청호나이스 창립 20주년을 맞아 올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청호나이스의 다양한 제품과 장점들을 소개하고자 기획했다"고 말했다. 청호나이스의 겨울 광고 '엄마의 지혜' 편은 다음달 1일 온에어되며 앞으로 지상파·종편·케이블·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박지원기자

상주인원 1만여 명의 풍부한 독점 수요!

'강서한강자이타워 상가' 임차인 특별 모집

348실 지식산업센터 780세대 아파트 독점적 고정 수요 확보 지하철 9호선 가양역(급행)과 양천향교역 더블역세권 상가

GS건설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강서한강자이타워' 내 독점상가를 임대(분양) 중이다.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인 강서한강자이타워는 지하 2층, 지상 12~15층에 이르는 대규모 '트윈타워' 건물로, 상가는 건물 A·B동 지상 1~2층에 들어선다. 분양 점포수는 70여개로 전용면적은 36~562㎡다.

'강서한강자이타워 상가'는 독점적 고정 수요가 탄탄하다. 348실 대규모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서는 상가일 뿐만 아니라, 780세대에 이르는 강서한강자이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 역할도 담당한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및 강서한강자이 아파트 독점 상가로써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가 용이하다. 그리고,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지하철 9호선 가양역과 양천향교역이 있는 더블역세권 상가로 365일 유동인구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상가 전면에 8차선 대로가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대형할인마트인 홈플러스가양점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유동인구 확보가 가능하다. 마곡지구의 개발 호재도 기대감을 높인다.

'강서한강자이타워 상가'는 병원/학원/음식점 등 강서한강자이타워, 아파트 입주고객이 선호하는 인기업종만 우선모집중이다. 즉시 입점이 가능하며, 가양동 현장에 샘플하우스를 운영중이다.

상가 임대분양문의 (02)3665-0540

반갑다! 무한리필 카페

카페 큐브-음료 메뉴 무료 테이크 어반-빵뷔페 애칭 더 페이머스램-커피 맘껏

디큐브시티 내 디큐브아카데미의 '카페 큐브'

최근 '무한 리필'을 내세운 이색 콘셉트의 카페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는 눈치를 주지 않고 무료로 음료까지 즐길 수 있는 스터디 카페부터 빵순이들을 위한 무한 빵 리필 카페, 어떤 음료를 마셔도 무제한으로 드립커피를 리필해주는 곳까지 등장했다.

1·2호선이 만나는 신도림역 디큐브시티 내 디큐브아카데미의 카페큐브는 최근 도서관의 답답함을 벗어나 스터디 공간을 찾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카페에서 업무를 하는 코피스족(1인 창업자·강사·저자·프리랜서)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커뮤니티 라이브러리 카페인 이곳은 500여 권의 전문·신간 서적이 비치돼 있고, 15층에 위치해 확 트인 스카이 뷰와 고급 원두커피 등 음료가 무료로 제공돼 학업과 독서·업무 이외에 혼자만의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빵 뷔페로 불릴 만큼 다양한 빵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카페도 있다. 신논현역에 위치한 카페 '테이크 어반'은 음료 가격에 1000원(주말 1500원)만 추가하면 빵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스마일 타임'을 운영하고 있다. 평일은 오전 5시~9시30분, 공휴일 및 주말은 오전 8~10시 영업한다. 올리브햄·치아바타·모닝빵·잉글리시머핀 등 7~8가지의 다양한 빵을 맛볼 수 있다.

드립커피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홍대 인근 카페 '더 페이머스램'도 인기다. 이 곳에선 꼭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복숭아 콘 레체 등의 음료를 마시고 커피 리필을 원하면 직접 내린 드립커피를 무한으로 즐길 수 있다. /정혜인기자 jmw@metroseoul.co.kr

리복 '윈터 재킷' 열 샐틈 없네

스포츠 브랜드 리복이 '윈터 재킷 컬렉션'을 선보였다.

피트니스 라인의 'RF 베비 구스다운 재킷'은 안감에 열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는 원단을 사용해 보온성을 높이고, 겉감에는 블레이실드 기능성 원단을 써 방수·방풍 기능을 강화했다. 색상은 골드캔버스, 레드 블랙, 블랙 등이 있다. 가격은 39만9000원. 남성용 버전으로 'DST 익스트림 구스다운 재킷'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가격은 47만9000원.

클래식 라인의 'GL 롱 다운 재킷'은 여성 스타일로 가격은 29만9000원이다. 문의 shop.reebok.co.kr 02)508-2606 /박지원기자

코레일관광개발 장관상

코레일관광개발(대표 이건태)은 지난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0회 기업혁신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관광개발은 신성장 사업과 고객 감동 경영, 지방특화 관광 상품 운영 등의 경영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대기업 부문 장관상 수상 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유재웅기자

갖고싶던 '잇 뷰티'만 모았네

연말맞이 한정판 풍성
인기상품만 세트 구성
개별 구매보다 저렴해

뷰티 업계가 화려한 연말 분위기에 힘을 실어줄 홀리데이 한정판을 쏟아내고 있다. 시즌에 어울리는 특별한 향과 아기자기한 패키지로 구성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격이다.

더바디샵은 2013년 크리스마스 에디션을 선보였다. '크랜베리 조이' '바닐라 블리스' '진저 스파클' 등 총 3가지 컬렉션을 포함, 다양한 기프트 세트로 구성했다. 이들 제품은 보디케어 제품부터 디퓨저까지 다채로운 라인업을 갖췄으며, 3가지 컬렉션의 판매 수익금 일부는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 기부된다.

펜로소피는 크리스마스 일러스트가 돋보이는 틴케이스 2종과 히트 아이템만 담은 베스트 키트 3종 등 총 20종을 출시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베네피트는 올 한 해 가장 인기를 끈 베스트 제품을 하나로 모아 '잇츠 어 러브 페스트' '러브 미 브라이트' 등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 세트 3종을 내놨다. 인기 제품 4종을 묶어 제품을 따로 구매할 때보다 약 40% 저렴하다. 코리아나화장품의 메이크업 브랜드 글램3의 듀얼 씨퐁 립글로스는 건조한 입술을 촉촉하게 가꿔줄 '로맨스 씨퐁 핑크 립글로스'와 프루티 플로럴 계열의 향수 '로맨스 톤은 씨퐁'을 담았다.

SK-II는 스와로브스키 엘리먼츠와 협업을 통해 'SK-II 피테라 에센스 한정판'을 출시한다. 병은 SK-II의 상징인 버건디 컬러에 크리스털 커팅 기법인 실리온 커트 프린팅으로 장식해 소장 가치를 높였다. 크리스털로 장식된 손거울도 함께 준다. /박지원기자

코치·DKNY 등 명품향수 12종 균일가 이벤트

에스티로더 화장품 그룹의 아라미스 & 디자이너 향수 사업부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29일부터 디자이너 향수 판업세일을 진행한다.

참여 브랜드는 코치·도나카렌뉴욕(DKNY)·토미 힐피거 등이며, 제품 종류는 12종이다. 30㎖ 용량 향수 제품을 각 지점 100개 한정으로 2만9000원 균일가에 판다.

행사는 29일부터 3일간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12월 2일부터 4일간 AK플라자 분당점, 12월 6일부터 사흘간 현대백화점 신촌점 등에서 각각 진행된다. /박지원기자

아빠! 술 한잔 전 우유 한잔

우유는 숙취예방 음료

알코올 분해성분 풍부해
간의 해독작용 도와주고
뮤신·비타민A·유지방이
위벽 보호하고 염증예방

회식과 모임이 많은 연말이면 술자리도 잦아진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술자리에 숙취로 고생하는 직장인이 많다. 술은 적당히 마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술자리를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인디언들은 오래전부터 숙취를 예방하는 음식으로 아몬드를 먹었다. 아몬드에는 간을 활성화시키고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능이 있다.

음주 전 우유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간이 알코올 독성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지방·비타민이 필수적인데 우유에는 이 성분들이 풍부해 간 해독 작용을 돕는다. 더불어 우유는 강한 산성을 띠고 있는 위액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뮤신'이라는 성분이 위벽을 보호하고, 우유에 들어있는 나트륨과 탄산수소이온은 뮤신과 함께 위산으로부터 위장 점막을 보호한다. 이 때문에 우유를 마시면 공복감은 덜 느끼고, 그만큼 과음과 과식의 유혹을 덜 받게 된다.

◆속쓰림 등 위장 질환에 효과적

최근 스트레스로 속쓰림·소화불량·위궤양·위염 등 위병을 앓고 있는 직장인 역시 늘고 있는데, 이 같은 위질환은 심각할 경우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우유는 산을 중화시키는 완충 작용을 통해 위벽을 보호한다. 또 우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A는 위 점막을 구성하는 성분 중 하나로 위에서 점액이 잘 형성되도록 도와 염증을 막아준다.

유지방 역시 위 속의 산과 점막 조직 사이에 물리적인 피막을 형성해 위 점막을 보호한다. 적은 양이더라도 우유를 계속해서 섭취하면 위궤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다.

◆위염 환자도 하루 2잔 도움돼

하지만 우유를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위산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복보다는 음식물을 섭취한 후 마시는 것이 좋다. 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유를 조금씩 여러 번 마셔 위액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위염 환자는 성인 권장량과 동일한 양인 하루 2잔 정도가 적당하며, 위궤양 환자는 약물치료 3주 후부터 우유 마시기를 병행해야 효과가 있다.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연말에는 다양한 모임 때문에 다이어트나 절주 등의 계획이 무너지기 쉽다"면서 "연일 이어지는 연말 모임과 평소 잦은 회식으로 위에 부담이 느껴진다면 우유로 위 건강은 물론 숙취 걱정까지 해결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박지원기자

겨울에 끌리는 사랑의 맛 '카카오 스무디'

겨울 하면 떠오르는 핫 다크초콜릿 한 잔. 중독성 있는 달콤 쌉싸래한 맛으로 남녀노소의 사랑을 받고 있는 다크초콜릿은 최근 다양한 영양 성분까지 알려지면서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다크초콜릿의 주성분인 카카오에 함유된 폴리페놀은 암·노화 등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스트레스 등에 효과가 있으며, 초콜릿에는 사랑을 느낄 때 뇌에서 분비되는 '쾌락물질'인 '페닐에틸아민'이 풍부해 우울감을 치유하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적당량 즐기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크초콜릿이 소비자들의 손길을 유혹하고 있다.

글로벌 넘버 원 오리지널 스무디 브랜드 '스무디킹'(대표 김성완)은 스무디킹의 국내 판매 1위 베스트셀러 제품인 '스트로베리 익스트림 스무디'를 모티브로 해 겨울에 어울리는 카카오를 더한 '카카오 익스트림 스무디'를 선보이고 있다.

겨울 시즌 한정 메뉴인 카카오 익스트림 스무디는 진한 카카오의 맛과 영양을 상큼한 스트로베리와 함께 더욱 고급스럽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스타일의 익스트림 스무디다. /양성운기자

오늘 aT센터서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농림축산식품부는 29~3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국산 과일의 우수성을 알리는 '2013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사장에는 전국 및 지역 공동 브랜드 등 유명 브랜드를 전시하는 '과일브랜드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게 첨단시설·장비로 과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과일전문APC관'이 개설된다.

부대 행사로는 29일 '과일요리 경연대회'가 열려 사전에 공모한 레시피 중 심사를 통과한 8개 팀이 본선을 치르며 현장 요리경연을 통해 농식품부 장관상 등 4팀을 시상한다. 30일에는 유명 요리사인 이연복 씨를 초청해 이야기가 있는 과일 요리를 시연·시식하는 '쿠킹 클래스'를 펼친다.

metro entertainment

살인마 연기 원없이 했다… 소년 이미지 싹 지웠다

영화 '더 파이브' 온주완

배우 온주완(30)은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부드러운 얼굴선 탓인지 소년 같은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14일 개봉한 영화 '더 파이브'에서는 지금까지의 이미지를 완벽히 지워내는 데 성공했다. 극중 냉혹한 연쇄살인범을 연기한 그는 연기는 물론 외모에서까지 놀라운 변화로 색다른 매력을 발산했다.

 # 매력적이지만 광기 넘치는 '악마'

동명의 인기 웹툰이 원작인 이 영화는 은아(김선아)가 남편과 딸을 죽게 한 연쇄살인범을 상대로 자신의 장기를 담보로 내걸고 다섯 명의 조력자를 모아 복수에 나서는 내용이다. 웹툰을 제작한 정연식 작가가 직접 각색·감독을 맡은 작품이다.

온주완은 이 영화에서 소녀들의 뼈로 인형을 만드는 연쇄살인범 재욱을 연기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작가인 데다 외모도 매력적이지만 속은 광기가 넘치는 예술혼에 불타는 재욱은 기존 한국 영화에서 그려지던 연쇄살인범과 달랐다.

"사실 실존성은 없는 인물이죠. 만화적인 요소가 강한 인물이라 참고할 만한 다른 작품도 별로 없었어요. 그나마 사람을 이용해 향수를 만드는 연쇄살인범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향수'가 비슷하다고 생각해 분위기만 참고했죠. 기존 인물을 모방한다고 해서 매력적으로 표현해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재욱의 캐릭터를 만드는 데 성공해 낸 그는 "재욱을 매력 있게 스크린에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사람들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선입견을 깰 자신도 있었다"면서 "그런 자신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덤비지 않았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이 같은 자신감과 의지력은 온주완의 캐스팅을 반대했던 제작자인 강우석 감독의 마음을 돌렸다. 온주완을 알지 못했던 강 감독은 재욱 역에 다른 배우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온주완은 연기 생활 10년차인데도 직접 오디션을 자청했고 치밀한 해석과 표현력으로 당당히 배역을 따냈다.

> 배역 몰입하다 성격 날카로워져 틈나는대로 털어내야만 했어요 한계단씩 천천히 성장할겁니다

"갈망했지만 쉽지 않았던 배역을 해냈을 때 온 쾌감은 대단했죠. 자신감도 더 붙었고요. 보통 한 작품을 찍고 나면 아쉬움이 남기 마련인데, 이번 영화만큼은 원 없이 노력했고 연기했기에 아쉬움이 적어요."

 # 데뷔 9년차 배우… 존재감 알려

배역에 100% 몰입하다 보니 카메라에서 벗어났을 때도 냉혹하고 광기 어린 재욱의 감정이 남아 혼란스러웠다고 했다. 집에서 연기 연습을 하다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를 죄책감이 느껴졌고, 점점 성격이 날카로워졌다는 것이다.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재욱의 감정을 더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감정을 사회로 가지고 나오면 큰일 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친구들을 자주 만나 넋두리를 쏟아냈죠. 주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면 연기와 실생활은 다르다는 것을 자연히 깨닫게 되더라고요."

배역에 몰입한 건 상대역인 김선아도 마찬가지였다. 김선아는 촬영장에서 자신의 배역에 집중하기 위해 온주완과 일부러 거리를 뒀다. 온주완은 "선아 누나가 영화 시사회 때도 은아의 감정이 떠오르는지 울더라"면서 "영화가 끝나고 나서 더 친해졌다"고 말했다.

2004년 영화 '발레교습소'로 데뷔해 '피터팬의 공식' '사생결단' '해부학교실' '무림여대생'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왔지만 대표작은 없던 온주완은 이번 영화로 충분히 자신의 존재감을 알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연을 날리듯 툭툭, 서두르지 않고 한계단 씩 올라왔다. 크게 욕심내진 않지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더 파이브'라는 계단을 올라야 했다"면서 다시 다음 계단에 오를 채비를 했다.

/박찬현기자 talk1027@metroseoul.co.kr

사진/황정아(라운드테이블) 디자인/박은지

우울한 '비'

'군 복무규정 위반' 고소장 검찰수사… 연예활동 제동

비(사진)가 군 복무 시절 문제로 본격적인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복무 당시 군의 복무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은 비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비가) 연예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기는 등 군형법을 위반했다"며 일반인 A씨가 비를 상대로 낸 고발장이 접수돼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비의 복무규율 위반에 대한 논란은 비와 김태희의 열애설 사진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개된 사진 속에서 비는 군복을 입고 군모는 쓰지 않은 채로 거리를 걷는 등 복무규율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15개월 동안 연예병사로 복무하면서 일반병사의 휴가 일수보다 많은 휴가와 외박을 나가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고발장 등 서면 검토를 거쳐 필요하면 본인과 주변인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비는 다음달 초 할리우드 복귀작인 영화 '더 프린스' 촬영에 들어가며 내년 1월 새 앨범을 발표한다. /유순호기자 sunc@

K-팝 가수 '화끈한 분풀이'

日 연말 음악 프로 출연배제에 보란듯 오리콘 톱 5 무더기 진입

일본의 연말 주요 음악 프로그램 출연이 전면 배제된 K-팝 가수들이 분풀이하듯 오리콘 톱 5에 무더기로 진입했다.

빅뱅의 지드래곤(사진 오른쪽)은 27일 발표한 일본 솔로 데뷔 앨범 '쿠데타'로 오리콘 앨범 일간차트 2위에 올랐다. 이 앨범은 하루에만 3만4597장이 팔려나갔으며, 이는 2011년과 지난해 빅뱅이 일본에서 발표한 앨범, 승리와 대성이 일본에서 출시한 솔로 앨범의 하루 판매량을 넘어선다.

현지 음반 관계자들은 "지드래곤의 솔로 데뷔 앨범이 지금까지 발매된 빅뱅 관련 작품들의 오리콘 주간 최다 판매량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앨범에는 9월 국내에서 발표한 정규 2집 '쿠데타'의 앨범 수록곡들을 비롯해 지난해 9월 발표한 앨범 '원 오브 어 카인드', 2009년 솔로 데뷔 앨범 '하트 브레이커'에 포함된 노래들이 총망라됐다.

지드래곤은 올해 월드투어의 일환으로 일본에서 진행한 4대 돔투어의 실황 DVD를 20일 출시해 DVD 종합 주간차트 3위를 기록했다.

동방신기(왼쪽)는 27일 일본에서 출시한 새 싱글 '메리 메리 X마스'로 하루에 7만7831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오리콘 싱글 일간차트 2위에 올랐다. 5인조 활동을 재개한 카라는 27일 싱글 '브랜지 키스'와 앨범 '베스트 걸즈'를 동시에 발표해 각각 싱글과 앨범 일간차트 4위에 올랐다.

인피니트는 첫 번째 일본 아레나 투어의 실황을 담은 DVD를 이날 발표해 DVD 종합 일간차트 2위를 차지했다.

/유순호기자 sunc@metroseoul.co.kr

박한별 '레드의 유혹' 박한별이 추위를 녹이는 강렬한 레드 언더웨어 패션을 선보였다. 한 언더웨어 브랜드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판타지 레드 월 콘셉트로 화보를 촬영했다. 업체 관계자는 "흐트러지기 쉬운 묘거나 눕는 자세를 취해도 군살 하나 없는 탄탄한 몸매로 섹시한 매력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 환궤같은 유머네요. /유순호기자

3색 X-마스 앨범 '감동 3배'

'아메리칸 아이돌' 스타 켈리 클락슨 등 다양한 장르 음반 출시

켈리 클락슨 / 수잔 보일 / 조슈아

세계적인 오디션 출신 스타와 클래식 아티스트가 다양한 색깔의 크리스마스 앨범으로 따뜻한 감성 선율을 선사한다.

아메리칸 아이돌이 배출한 최고의 스타인 켈리 클락슨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앨범 '랩트 인 레드'를 발표했다. 타이틀곡 '랩트 인 레드'를 비롯해 캐롤계의 스테디셀러 가수인 머라이어 캐리를 겨냥한 듯한 '언더니스 더 트리', 클락슨 특유의 절절한 숨을 들을 수 있는 '에브리 크리스마스', 싱그러운 건반과 오케스트라 편성이 결합된 '윈터 드림스' 등이 수록됐다.

영국의 대표 오디션 프로그램인 '브리튼스 갓 탤런트' 출신으로 전 세계에 20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수잔 보일은 크리스마스 앨범 '홈 포 크리스마스'를 발매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성을 사후 녹음해 듀엣곡으로 복원한 '오 컴 올 예 페이스풀'을 비롯해 또 다른 듀엣곡 '웬 어 차일드 이즈 본', 수잔 보일이 조연으로 출연하는 영화 '크리스마스 캔들'의 OST '미러클 힐' 등이 수록됐다.

바이올린의 시인 조슈아 벨은 새 앨범 '뮤지컬 기프트'를 통해 소수의 벨 앤드 프렌즈를 출시했다. 이번 음반은 전설의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재즈 피아노의 거장 칙 코리아, 라틴 댄스의 여왕 글로리아 에스테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와 함께 작업해 팬들에게 보내는 음악 선물이다.

크로스오버 연주 그룹 피아노 가이즈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앨범 '어 패밀리 크리스마스'를 내놓았다. 앨범에는 기존 크리스마스 음악을 재해석한 10곡과 피아노 가이즈가 만든 창작 음악 2곡이 수록됐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트로트 버전으로 돌아온 '슈스케'

"내년 3월 방송 예정"

엠넷의 대표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가 트로트 버전으로 새롭게 돌아온다.

28일 엠넷은 "작곡가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히트' 후속으로 2014년 트로트 프로그램 '트로트 엑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 3월 방송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트로트 엑스'는 '슈퍼스타K' (시즌2~4) '개훈이의 순결한 19' '꽃미남이룡시티' 등을 연출한 김태은 PD가 연출을 맡는다.

김 PD는 "트로트는 젊은 세대에게 다소 올드하고 촌스럽다는 인상을 수도 있지만 한국 가요사에서 대중과 오랜 기간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장르다"며 "프로그램을 통해 트로트의 화려한 부활과 샛별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고 기대를 당부했다.

한편 '트로트 엑스'는 다음달 2일 일반인 참가자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프로그램 준비를 준비한다. /김성준기자 yjw@

star bag

자원봉사 김제선그룹 2집

자인표·심태윤을 비롯해 연예계와 각계 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밴드 김제선밴드가 2집 '그의 열매'를 발표한다.

2009년 11월 출시한 1집 '사랑하기 때문에' 이후 4년 만에 나온 앨범이다. 가난에 꿈을 잃은 어린이들을 함께 노래하는 아들의 바람을 담았다. 다음달 12일 전상동 블루스퀘어에서 2집 발매 쇼케이스를 개최하고 세 곡을 부른다.

'환제를 위하여' 주인공 발탁

배우 박성웅이 액션 누아르 '황제를 위하여'의 주인공으로 발탁됐다.

부산을 배경으로 거친 사내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번 영화에서 그는 사채업과 도박판을 주름잡는 황제파의 보스 상하 역을 맡았다.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냉철한 이지만 조직의 식구들만은 의리와 신뢰로 이끄는 인물이다. 이민기가 추락한 야구선수 이환으로, 이태임이 술집 여사장 연수 역으로 출연한다.

'감격시대' 김현중 짝사랑녀

신인 배우 백누리가 KBS2 새 수목드라마 '감격시대'에 캐스팅됐다.

그는 김현중을 짝사랑하는 소녀 엄얌 역을 맡아 깜찍한 매력을 발산할 예정이다.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도와준 신정태(김현중)를 짝사랑하게 되는 캐릭터다. 백누리는 지난해 드라마 '해를 품은 달'과 '신이라는 당신에게' 등을 통해 신인답지 않은 안정적인 연기력과 신선한 이미지로 관심을 받았다.

김우빈·이미숙과 한솥밥

배우 한은정이 김우빈, 이미숙과 한솥밥을 먹는다.

한은정은 1999년 미스 월드 퀸 유니버시티로 데뷔했으며 노사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드라마 '명랑소녀 성공기' '풀하우스' '신데렐라맨' '구미호: 여우누이뎐', 영화 '기생령' '신기전'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폭넓은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현재 차기작 선정에 고심 중이다.

YES24.COM 예매순위

순위	영화	예매율
1	열한시	7.33%
2	헝거게임: 캣칭 파이어	11.99%
3	극장판 포켓몬스터 베스트위시2	6.56%
4	친구2	6.40%
5	창수	6.12%

화려하진 않지만 긴장 넘치는 스릴러

film review

■열한시

28일 개봉한 '열한시'는 국내 영화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타임스릴러 장르다.

시간여행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연구원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24시간 뒤의 미래에서 가져온 폐쇄회로(CC)TV에서 자신들의 죽음을 목격한 후 사건을 추적해나간다는 이야기다. 연구원들은 죽음을 막으려고 애쓰지만 오히려 이런 행동이 점점 예정된 죽음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동안 '닥터진' '나인: 아홉 번의 시간여행' 등 시간여행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많았지만 영화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시도만으로 주목할 만하다. 관객들이 '백 투 더 퓨처' 시리즈 등 대작들로 눈높이가 한껏 높아진 상황에서 시간여행 소재는 거대한 스케일을 구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돼 할리우드 영화의 전유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일단 이 영화는 적은 예산이라는 핸디캡을 안고서도 이질적인 분위기로 사건을 긴장감 있게 담아내는 데 성공했다. 자칫 복잡할 수 있는 현재와 미래를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연결하는 시나리오 구성도 탄탄한 편이다.

또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해도 예정대로 흘러가는 미래와 자신이 살고자 상대를 희생시켜야 하는 도덕적 딜레마에 처한 연구원들의 행동을 통해 거대한 운명 속 인간의 자유의지의 존재 여부, 선과 악의 판단 등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주기도 한다.

배우들의 연기도 크게 흠잡을 곳이 없다. 시간 이동에 집착하는 천재 물리학 박사 우석 역을 연기한 정재영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서서히 변해가는 감정 변화를 완벽하게 표현했다. 우석과 대립하는 지완 역의 최다니엘과 사건의 유일한 단서인 CCTV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영은 역의 김옥빈도 충실히 제 몫을 해냈다.

물론 이 영화는 한정된 시간과 비용 때문에 스케일 면에선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낸다. 실제에 위치한 연구소의 전경에는 세밀함이 없고 과학적인 고증을 거쳐 디자인됐다는 타임머신은 식상하다. 공간이 연구소 한 곳으로 집중된 만큼 할리우드 영화에 비해 볼거리도 턱없이 부족하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연구에 파묻혀 연구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우석 등 인물들의 감정이나 행동의 당위성이 잘 설명되지 않은 점도 아쉽다.

그러나 SF가 아니라 단지 시간 이동을 소재로 했을 뿐인 스릴러 장르라는 점에 방점을 놓고 본다면 색다르고 긴장감 있는 스릴러물 한 편이 탄생했다고 평가받을 만하다.

김우빈 영화·드라마 쌍끌이 흥행

'친구2' 250만 관객 돌파 '상속자들' 시청률20% 1위

배우 김우빈(사진)이 영화와 드라마로 쌍끌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김우빈이 주연한 영화 '친구2'가 개봉 14일 만에 손익분기점인 250만 관객을 넘었다. 2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14일 개봉한 이 영화는 27일 하루 동안 5만6979명의 관객을 동원해 일일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했다. 누적 관객 수는 250만6759명이다.

안방극장에서도 반항아 캐릭터로 승승장구 중이다. SBS 수목극 '상속자들'에서 제国그룹 차남 영도 역을 맡은 그는 짝사랑 중인 은상(박신혜)에게 악동처럼 까칠하게 대하다가도 순간순간 돌직구로 마음을 표현하는 '상남자'의 매력으로 '영도앓이'를 일으키고 있다. 이 드라마는 20%가 넘는 시청률로 독주하고 있다.

최근 모델 유지안과 열애 중이라는 사실이 공개됐지만, 흥행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위기다. 김홍선 감독의 영화 '체크 메이트'의 주인공으로 물망에 올랐고, 이외에 여러 작품과 광고 출연 제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훈기자

데미무어·애쉬튼 커처 이혼

할리우드 스타 데미 무어(사진 왼쪽)와 애쉬튼 커처(오른쪽)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27일(현지시간) AP·AFP통신 등 외신들은 이날 데미 무어와 애쉬튼 커처의 이혼 소송이 종결됐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상급법원의 스콧 고든 판사는 커처가 무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열여섯 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부부가 돼 화제를 모은 이들은 2011년 11월 커처의 외도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별했다. 커처는 지난해 12월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3억 달러에 이르는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이견이 발생해 소송이 길어졌다고 AFP는 전했다.

한편 미국 연예 매체 TMZ는 이번 이혼으로 커처가 '프렌즈 위드 베네핏' '블랙 스완' 등에 출연한 배우 밀라 쿠니스와 결혼할 길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명성원기자 ysw@

★ 보르코시건 시리즈 ★

명예의 조각들

베스트 글·그림 이기

RIDIBOOKS 전자책은 리디북스에서 제공합니다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날씨

11/29 金

남북대결의 증거 '유진상가'

권기봉의 도시산책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내년 단체장 선거 출마 고민중 / 운로 남동쪽 향하고 관직 사주

역학 공부 제대로 하고 싶은데 / 학업 시작에 나이는 상관없어

신접[神占] 운세

선수 끌어안는 LG, 선수 밀어내는 두산

만년 지붕 라이벌인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LG는 12년 만에 가을잔치에 진출해 잠실을 뜨겁게 달궜고, 두산은 4위로 포스트 시즌에 턱걸이했지만 한국시리즈까지 진출하며 '미러클 두산'의 저력을 보여줬다.

2013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에서 꼭 같이 기쁨과 아쉬움을 맛본 두 팀이 극과 극의 스토브리그를 보내고 있다.

한지붕 라이벌 두 팀 스토브리그 '극과 극' 행보

이병규 권용관 이종욱 김선우

이병규·권용관 등 재계약 팀워크 다지며 내실 중점

◆LG 믿음의 야구 팀워크 다져

성공적으로 올 시즌을 보낸 LG는 어느 때보다 내실을 다졌다. LG는 자금력이 있지만 올해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는 적극적인 영입 경쟁을 벌이지 않았다. 반면 기존 선수들과 재계약하며 팀워크를 보다 끈끈하게 만들었다.

캡틴 이병규(등번호 9번)와 3년간 총액 25억5000만원 계약을 체결하며 그에게 최고령 FA라는 타이틀을 안겼다. 권용관과도 비록 1년이지만 계약했다. 불과 1년 전까지 방출 선수였던 그이기에 결코 나쁘지 않은 결과다.

이처럼 선수들과 구단의 믿음이 쌓여가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고 있다. 지난해 LG에서 FA 4년 재계약을 맺은 정성훈과 이진영은 LG의 믿음에 화답하듯 최근 2년 연속 3할을 때리고 안정적인 수비력으로 꾸준히 팀에 공헌하고 있다.

이종욱 포함 주전 대이탈 준우승 감독마저 경질돼

◆두산 릴레이 이탈 분위기 싸늘

포스트시즌까지만 해도 열정으로 끓어오르던 두산의 분위기는 싸늘히 식었다. 두산은 팀의 주전 선수들을 떠나보낸 데 이어 전어 임기 1년의 김진욱 감독을 경질시켰다. 그 이밀로 두산의 행보는 야구업계의 '트러블메이커'로 떠올랐다.

두산은 이종욱, 손시헌(이상 NC), 최준석(롯데)을 FA로, 임재철(LG), 김상현(KIA), 이혜천(NC)을 2차 드래프트로 떠나보냈다. 25일에는 2000년대 중반부터 두산 약진의 상징 중 하나였던 김선우를 방출했다.

특히 팀을 한국시리즈까지 진출시킨 김진욱 감독 경질은 화룡점정을 찍었다. 역대 프로야구 스토브리그를 통틀어 이 정도로 단기간에 한 팀을 갈아엎는 수준의 변화는 드물었다. '영원한 젊음의 팀'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으로 볼 수 있지만 냉정하고 차갑다는 인상을 팬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물론 신임 사령탑인 송일수 감독에 거는 팬들의 기대감도 크다. 분석력이 뛰어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일본프로야구에서 활동해 올해 두산 2군 감독으로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덕분에 '제2의 김성근'을 예고하고 있다. 내실 다지기에 나선 LG와 체질 개선에 나선 두산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이후 팀 성적과 선수들 성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정성훈기자 ysm@metroseoul.co.kr

28일 오후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창원 LG 대 원주 동부의 경기에서 LG 김종규가 동부 김주성보다 먼저 리바운드 볼을 낚아채고 있다. /연합뉴스

LG, 동부 꺾고 파죽의 3연승 달려

'슈퍼루키' 김종규 골밑 활약 앞세워 단독 2위 올라

프로농구 창원 LG가 '슈퍼루키' 김종규의 골밑 활약을 앞세워 3연승을 내달렸다.

LG는 28일 경남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정규리그 3라운드에서 원주 동부를 70-54로 이겼다.

이로써 최근 다섯 경기에서 4승1패를 기록한 LG는 선두 서울 SK(14승4패)와의 승차를 1.5경기로 줄여 단독 2위에 올라섰다.

LG는 1쿼터부터 양우섭이 7득점을 뽑아내고 김종규가 림에 맞고 튀어나온 공을 공중에서 덩크슛으로 연결하는 등 맹공을 펼쳐 21-7로 기선을 잡았다.

동부는 2쿼터에서 김종규의 큰 키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한 김주성의 활약에 힘입어 23-35로 추격했다. 4쿼터에는 7점 차까지 간격을 좁혔다.

하지만 LG는 경기 종료를 앞두고 문태종과 김종규의 연속 득점이 이어지며 동부의 추격을 뿌리쳤다.

이날 LG에서 크리스 메시는 18점 12리바운드, 7어시스트, 김종규는 15점 7리바운드로 선전했다.

24일 SK를 꺾고 12연패에서 탈출한 동부는 이번 경기로 연패 5승 14패를 기록하며 다시 최하위로 밀려났다.

/박진원기자 lab0427@

프로농구 전적 28일

LG	21	14	18	10	70
동부	8	15	20	11	54
삼성생명	14	14	19	15	62
우리은행	11	14	23	15	63

프로배구 전적 28일

러시앤캐시	0	3	기업은행
우리카드	3	0	현대캐피탈

"벨트란보다 추신수가 낫다"

뉴욕 언론 "양키스 계약하면 5년간 957억 받을 것"

뉴욕의 스포츠 매체가 미국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인 추신수(31·사진)의 뉴욕 양키스행을 전망했다.

양키스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예스 네트워크는 28일 "추신수가 양키스와 계약한다면 5년 9000만 달러(약 957억원)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추신수는 거액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외야수"라고 보도했다.

예스 네트워크는 올해 세인트루이스를 월드시리즈로 이끈 FA 카를로스 벨트란(36)과 비교하며 추신수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다.

이 매체는 "추신수는 올해 0.423의 출루율을 기록했다. 빠른 발과 힘을 갖췄고 가장 큰 장점은 출루다. 양키스는 출루율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부문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이라고 파악했다.

51경기의 포스트시즌을 소화한 벨트란에 비해 추신수는 큰 경기 경험이 부족한 점을 추신수의 단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외야 수비가 뛰어나고 어느 타순에서도 제 역할을 하는 등 젊고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벨트란과 7년 계약을 하는 것보다 추신수와의 5년 계약이 더 안정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장순호기자 sjun@

손흥민 챔스리그 또 빈 손

손흥민(21·바이엘 레버쿠젠)이 70분간 활약한 레버쿠젠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0-5로 대패했다.

28일 레버쿠젠 바이 아레나에서 열린 UEFA 챔피언스리그 A조 5차전 레버쿠젠과 맨유와의 경기에 손흥민은 선발로 출전해 70분 동안 뛰었지만 득점 없이 교체됐다. 레버쿠젠은 승점 7점(2승1무2패)을 기록한 레버쿠젠은 샤흐타르 도네츠크(2승2무1패·승점 8점)에 뒤져 조 3위로 밀려났다. 자력 16강행이 불가능해 보인다.

레버쿠젠은 마지막 6차전 레알 소시에다드전을 승리하더라도 맨유와 샤흐타르 경기 결과에 따라 16강 진출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반면 맨유는 3승2무 승점 11점으로 6차전 결과에 상관없이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다.

손흥민이 28일 열린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맨유 에브라(오른쪽)를 상대로 슛 기회를 엿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장성훈기자